**BRICS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브라질연방공화국, 러시아연방공화국, 인도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 장관들이 2022년 5월 19일 화상회의를 가졌다. 2022년 BRICS 의장국인 중국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외교장관은 브릭스 국가들이 정치안보, 경제, 무역, 금융,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 협력 구조를 계속 공고히 하고, BRICS의 확산과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였다.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 이행을 가속화하며 현 국가정세의 새로운 양상과 도전에 직면하여 브릭스 국가들의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 19의 전염병이 인류에 충격과 어려움을 초래했으며 이에 외교부 장관들은 다양한 어려움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공동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여기서 장관들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불가결한 초석으로 포함하는 국제법을 수호하고, 주권 국가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국제 체제에서 유엔의 중심 역할을 지지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장관들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검사 도구, 의약품, 백신 및 중요한 의료 용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글로벌 면역 격차를 해소하는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브릭스 백신연구소를 공식 출범했으며 브릭스 국가의 대규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현장협력 양해 각서(mou=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채택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WHO를 포함한 기존 국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추적 가능 연구와 낙인에 반대하는 안건을 촉구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표명된 국가적 입장을 상기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지지했으며 우크라이나 및 그 밖의 지역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고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장관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외무장관들은 2022년 1월 3일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정상이 발표한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회피에 관한 공동성명에 주목하고 핵전쟁은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에 대한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을 약속하며 국내 거버넌스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촉구하였습니다.

**5월 21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역사와 현실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하고 우리의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모순과 위험을 초래할 뿐을 보여준다며 다시한번 BRICS 국가의 정치적 상호 신뢰와 안보 협력의 강화, 긴밀한 의사소통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발언**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적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지역의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활동 참여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유엔 총회와 세계 보건 총회의 관련 결의의 심각성과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대만의 세계 보건 총회 참석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였고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는 대다수의 국제 사회 구성원이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며 실패할 운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金砖国家外长会晤关于“应对国际形势新特点新挑战 加强金砖国家团结合作”的联合声明（摘要）**

2022年05月20日08:14    来源：[人民网－人民日报](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2-05/20/nw.D110000renmrb_20220520_5-02.htm)

巴西联邦共和国、俄罗斯联邦、印度共和国、中华人民共和国和南非共和国外长于2022年5月19日举行视频会晤，2022年金砖国家主席国中国主持会议。外长们重申金砖国家将继续巩固政治安全、经贸财金和人文交流“三轮驱动”合作架构，团结起来控制新冠肺炎疫情的传播和影响，加快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进一步拓展和深化金砖国家合作。外长们一致认为，面对当前国际形势新特点新挑战，金砖国家应该加强团结合作，携手应对。

外长们注意到，新冠肺炎疫情对人类造成前所未有的冲击和困难。外长们认识到与此相关的不确定性将影响全球范围实现可持续发展目标。外长们强调各种困难相互关联，进而重申国际社会需要加强团结合作，共同增强韧性。

外长们重申对多边主义的承诺，维护国际法，包括作为其不可或缺基石的《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维护联合国在国际体系中的核心作用，在此体系中各主权国家合作维护和平与安全、推动可持续发展、促进和保护民主、所有人的人权和基本自由，并基于相互尊重、正义、平等的精神加强合作。

外长们重申致力于加强和完善全球治理，推动构建一个更加敏捷、有效、高效、有代表性和负责任的体系，坚持在尊重各国主权、独立、领土完整、平等及彼此正当利益和关切基础上，开展包容协商与合作，以符合所有人利益。

外长们重申，必须确保各国人民特别是发展中国家人民，能够获取安全、有效、可及和可负担的诊断工具、药品、疫苗和关键医疗用品，确保疫苗公平分配，加快推进疫苗接种，弥合全球“免疫鸿沟”。外长们支持世界卫生组织在抗击疫情中发挥领导作用，支持“新冠疫苗实施计划”“全球合作加速开发、生产、公平获取新冠肺炎防控新工具倡议”等。外长们对金砖国家疫苗研发中心正式启动、建立金砖国家预防大规模传染病早期预警机制、通过《关于在人用医疗产品监管领域开展合作的谅解备忘录》表示支持。外长们呼吁在包括世界卫生组织在内的现有国际框架内，开展基于科学原则、基于证据决策、客观、包容、透明的溯源研究，反对污名化或干涉。

外长们强调全球经济治理对各国确保可持续发展至关重要，进一步忆及支持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拓展和加大参与国际经济决策和规则制定进程。外长们重申支持二十国集团在全球经济治理中发挥领导作用，强调二十国集团应保持完整、应对当前全球性挑战。外长们呼吁国际社会强化伙伴关系，强调要推动世界经济走出危机，实现强劲、可持续、平衡和包容的疫后经济复苏，必须加强宏观政策协调。外长们呼吁主要发达国家采取负责任的经济政策，管控好政策外溢效应，避免给发展中国家造成严重冲击。

外长们呼吁从经济、社会和环境三个方面，以平衡、全面的方式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

外长们支持开放、透明、公平、包容、非歧视的、基于规则的多边贸易体制，给予发展中国家特殊和差异化待遇，确保公平竞争环境，避免采取单边主义和保护主义等违背世贸组织规则的行动，支持一个强劲的、以基于份额、资源充足的国际货币基金组织为中心的全球金融安全网发挥中心作用。

外长们重申应恪守《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及其《巴黎协定》的目标、原则和规定，特别是基于各自不同国情的“共同但有区别的责任”和各自能力原则。外长们重申将通过国别和共同努力推动落实《巴黎协定》，并强调发达国家履行承诺的重要性，提供技术并动员可靠、充足、可预期、及时的额外气候融资，协助发展中国家应对气候变化。

外长们忆及在联合国安理会、联合国大会等场合就乌克兰问题表达的国别立场。外长们支持俄罗斯同乌克兰谈判。外长们讨论了对乌克兰境内外人道局势的关切，支持联合国秘书长、联合国机构和红十字国际委员会根据联大第46/182号决议提供人道援助的努力。

外长们强烈谴责一切形式和表现的恐怖主义，不论恐怖主义在何时、何地、由何人实施。外长们认识到恐怖主义、助长恐怖主义的极端主义和激进主义导致的威胁。外长们决心打击一切形式和表现的恐怖主义。外长们重申坚定致力于在尊重国际法，特别是《联合国宪章》和人权基础上，为预防和打击恐怖主义威胁的全球努力作出更大贡献，强调各国在打击恐怖主义方面负有首要责任，联合国应继续在该领域发挥核心协调作用。外长们反对在打击恐怖主义和助长恐怖主义的极端主义方面采取双重标准。

外长们重申致力于无核武器世界。外长们注意到中国、法国、俄罗斯、英国、美国领导人2022年1月3日发表的《关于防止核战争与避免军备竞赛的联合声明》，特别指出“核战争打不赢也打不得”。

外长们重申致力于促进开放、安全、稳定、可及、和平的信息通信技术环境，强调加强对信息通信技术和互联网使用的共识与合作的重要性。

外长们支持关于人工智能技术的信息交流和技术合作。

外长们呼吁尊重民主和人权，强调不仅应在国内治理，也应在全球治理层面得到体现。外长们重申致力于促进和保护民主、所有人的人权和基本自由，在互利合作的基础上构建人类命运共同体。

外长们赞赏中国作为主席国，以“在全球治理中进一步发挥新兴市场和发展中国家作用”为主题举行对话会。

外长们回顾金砖国家同其他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拓展合作的努力，支持根据金砖国家事务协调人2021年通过的修订版《金砖国家建章立制文件》，通过包容、平等和灵活的作法和倡议，进一步推进金砖外联活动和“金砖+”合作。

外长们支持通过讨论推进金砖国家扩员进程，强调有必要明确相关指导原则、标准和程序。

巴西、俄罗斯、印度、南非支持中国作为2022年金砖国家主席国，以“构建高质量伙伴关系，共创全球发展新时代”为主题开展工作。四国全力支持共同推动金砖国家领导人第十四次会晤取得圆满成功。

（本报北京5月19日电）

《 人民日报 》（ 2022年05月20日 02 版）

(责编：于子青、王潇潇)

<http://cpc.people.com.cn/n1/2022/0520/c64387-32425831.html>

**深化金砖合作，让进步的力量越聚越强（和音）**

2022年05月21日08:07    来源：[人民网－人民日报](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2-05/21/nw.D110000renmrb_20220521_2-03.htm)

中国将继续秉持开放包容、合作共赢的金砖精神，与金砖伙伴一道把合作的蛋糕越做越大，让进步的力量越聚越强，共同开创人类美好未来

“作为国际社会积极、向上、建设性力量，金砖国家应该坚定信念，直面风浪，以实际行动促进和平发展，维护公平正义，倡导民主自由，为处于动荡变革期的国际关系注入稳定性和正能量。”5月19日，习近平主席在金砖国家外长会晤开幕式上发表视频致辞，深刻阐述安全与发展两件大事，对深化金砖政治安全合作提出重要意见，为实现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美好愿景凝聚信心和力量。

当前，百年变局和世纪疫情相互交织，世界经济复苏脆弱乏力，发展鸿沟加剧，全球性挑战增多，国际形势中不稳定、不确定、不安全因素日益突出，治理赤字、信任赤字、发展赤字、和平赤字有增无减。但是，和平与发展的时代主题没有变，各国人民对美好生活的追求没有变，国际社会同舟共济、合作共赢的历史使命也没有变。在世界处于关键历史转折点之际，金砖国家加强团结合作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重要。

习近平主席指出：“历史和现实告诉我们，以牺牲别国安全为代价，片面追求自身安全，只会造成新的矛盾和风险。”在国与国相互依存的今天，追求“绝对安全”“独享安全”行不通，必须以对话取代对抗，以协商取代胁迫，以结伴取代结盟，以共赢取代零和，努力寻求普遍安全的最大公约数。习近平主席提出全球安全倡议，为破解全球安全治理难题、弥合全球安全鸿沟贡献了中国智慧、中国方案。金砖国家要加强政治互信和安全合作，就重大国际和地区问题密切沟通协调，照顾彼此核心利益和重大关切，相互尊重主权、安全、发展利益，反对霸权主义和强权政治，抵制冷战思维和集团对抗，共建人类安全共同体。

发展是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的共同任务。面对当前各种风险挑战，加强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团结合作，比以往任何时候都更为重要。习近平主席提出全球发展倡议，为推进全球发展事业指明方向、明晰路径，得到100多个国家和联合国等多个国际组织的积极响应和广泛支持，50多个国家加入“全球发展倡议之友小组”。金砖合作的意义超出五国范畴，承载着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乃至整个国际社会的期望。金砖国家要同更多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开展对话交流，打造开放多元的发展伙伴网络，以实际行动推动国际社会聚焦全球发展事业，让更多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共同唱响团结合作、互利共赢的大合唱。5月19日首次举行的“金砖+”外长对话会达成许多共识，体现了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联合自强、深化团结合作、共同开创光明前景的愿望和信心。

中国高度重视金砖国家合作机制，积极推动金砖合作走深走实。2013年以来，习近平主席在金砖国家领导人会晤等场合发表一系列重要讲话，为深化金砖合作提出中国倡议、注入中国信心、增添中国力量。从加快建设金砖国家新工业革命伙伴关系，联手培育经济增长新动能，到成立金砖国家疫苗研发中国中心，为消除疫苗鸿沟提供助力，再到举行金砖国家治国理政研讨会暨人文交流论坛，加强互学互鉴……中国与各方一道，推动金砖合作持续迈出新步伐、取得新进展，不断巩固政治安全、经贸财金、人文交流“三轮驱动”合作架构，构建起更紧密、更务实的伙伴关系。今年中国接任金砖主席国以来，已举办50多场重要活动，推动金砖合作在多个领域取得重要进展，为金砖国家领导人第十四次会晤奠定了坚实基础。

2017年，习近平主席在厦门主持金砖国家领导人第九次会晤，开启了金砖合作第二个“金色十年”，在金砖合作进程中留下了鲜明的中国印记。今年，中国将再次主办金砖国家领导人会晤，开启金砖合作新篇章。中国将继续秉持开放包容、合作共赢的金砖精神，与金砖伙伴一道把合作的蛋糕越做越大，让进步的力量越聚越强，共同开创人类美好未来。

《 人民日报 》（ 2022年05月21日 03 版）

(责编：代晓灵、薄晨棣)

 <http://cpc.people.com.cn/n1/2022/0521/c64387-32426707.html>

**外交部发言人就国际社会广泛支持中方在世卫大会涉台问题上的立场答记者问**

2022年05月22日08:00    来源：[人民网－人民日报](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2-05/22/nw.D110000renmrb_20220522_6-03.htm)

　　新华社北京5月21日电　外交部发言人汪文斌21日就国际社会广泛支持中方在世卫大会涉台问题上的立场答记者问。

　　有记者问：第七十五届世界卫生大会将于5月22日至5月28日召开。台湾当局外事部门对台未能受邀参会表示“遗憾和不满”。近期，许多国家纷纷致函世卫组织，支持中国政府不同意中国台湾地区参加今年世卫大会的决定，不希望今年大会就涉台问题进行任何讨论。请问中方对此有何评论？

　　汪文斌说，世界上只有一个中国，中华人民共和国政府是代表全中国的唯一合法政府，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中国台湾地区参与国际组织，包括世界卫生组织活动问题，必须按照一个中国原则来处理，联合国大会第2758号决议和世界卫生大会第25.1号决议确认了这一根本原则。

　　他说，2009年至2016年，在海峡两岸都坚持一个中国原则基础上，中方连续8年对中国台湾地区参与世卫大会作出特殊安排。但民进党执政以来，将政治图谋置于台湾地区人民福祉之上，顽固坚持“台独”分裂立场，拒不承认体现一个中国原则的“九二共识”，导致台湾地区参加世卫大会的政治基础不复存在。

　　汪文斌表示，中国中央政府高度重视台湾同胞的健康福祉，在一个中国原则前提下，对台湾地区参与全球卫生事务作出了妥善安排。新冠肺炎疫情发生后，中国中央政府已向台湾地区通报疫情约400次，过去一年批准台湾地区卫生专家参加世卫组织技术活动44批47人次，台湾地区多次接受世卫组织秘书处疫情信息通报，所谓“国际防疫体系缺口”根本就是无稽之谈。

　　汪文斌说，民进党当局无视国际社会聚焦抗疫合作的普遍愿望、无视台湾地区人民的生命安全，借疫情大搞政治操弄，违反联大第2758号决议和世卫大会第25.1号决议，不惜以干扰大会进程、破坏国际抗疫合作为代价，执意搞涉台提案。其真实目的就是在国际上制造“两个中国”或“一中一台”。

　　“为了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捍卫联合国大会及世卫大会相关决议的严肃性和权威性，中方不同意台湾地区参加今年世卫大会。中方这一决定得到了国际社会广泛支持和理解。”汪文斌说，迄今已有近90个国家以专门致函世卫组织等方式，表明坚持一个中国原则，反对台湾参加世卫大会的立场。这再次证明，一个中国原则是国际社会人心所向、大势所趋，也充分体现了绝大多数国家在世卫大会涉台问题上秉持正义的正确立场。

　　“世界人民的眼睛是雪亮的，任何打‘台湾牌’、搞‘以台制华’图谋必将遭到国际社会绝大多数成员的坚决反对，也注定会以失败告终。”汪文斌说。

　　《 人民日报 》（ 2022年05月22日 03 版）

(责编：刘圆圆、温璐)

http://cpc.people.com.cn/n1/2022/0522/c64387-32427019.html